

## 2.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미국남장로회의 입장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당국에서는 그해 8월 21일자로 각급 학교에 시국인식 철저에 관한 통첩을 보내는 한편 그 방책으로 매월 6일을 애국일로 지키도록 하였다. 또한 애국일 행사의 하나로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신사에 참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신사참배를 기독교교리에 위배되는 우상숭배라고 생각한 선교회와 기독교계 학교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당국과 마찰을 빚게 되었다.

사실 기독교계 학교에 대한 일제의 강요를 학교 쪽에서 거부한 예는 그 전에도 있었다. 즉 1932년 1월에는 “황군(皇軍)에 대한 기원제(祈願祭)에 학생들을 참석시키라.”는 당국의 요구를 광주의 숭일학교와 수피아여학교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문제가 일어난 적이 있었다. 그보다 약간 뒤인 그해 가을 평양의 기독교계 학교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이 학교들은 모두 장로교 계통이었는데(평양지역은 북장로회의 선교구역이었다), 특히 호남지역인 광주의 남장로회 소속 학교들이 먼저 당국의 요구를 거부한 점이 주목된다. 뒤에 살펴볼겠지만 장로교 선교회, 특히 남장로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하여 단호하고도 분명한 반대입장을 취하여 당국과 충돌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뒤에도 일제는 ‘전몰자(戰歿者)들을 위한 위령제·초혼제에 기독교계 학교 학생들을 참석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지만 교리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학교 쪽에서는 난색을 보였고, 그 결과 당국과 학교 사이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러다가 1935년 11월 일어난 ‘평양지역 기독교계 사립학교 교장들의 신사참배 거부사건’을 계기로 일제는 물리적인 박해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즉 신사참배를 거부한 평양 숭실학교 교장 매쿰(G. S. M cCune, 운산은), 승의여학교 교장 스눅(V. L. Snook, 선우리), 순안 의명학교 교장 리(H. M. Lee, 이희만) 등이 강제파면된 것이다.

이러한 일제의 위협은 평양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되어, 마침내 호남지역에도 닥치게 되었다. 즉 1937년 9월 4일 전라남북도 지사들은 그 지역의 교장들을 모아 애국일 행사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였다. 이에 교장들은 동방요배(東方遙拜)는 가능하지만 신사참배는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장로회 선교부에서 이처럼 신사참배에 대하여 단호한 입장을 취한 것은, 미국남장로회 외지선교국 총무 풀턴(Darby Fulton)이 1937년 2월 내한하여 신사참배에 대한 반대방침을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아버지가 일본 관서신학교(關西神學校) 교장이었기 때문에 신호(神戶)에서 출생·성장하였으며, 미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후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선교사업에 종사하였다. 따라서 그는 일본사정에 정통하였으며 특히 신사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전주에서 남장로회 총회를 소집하고, 신사참배는 종교행위임이 명백하므로 당국에서 이를 강요하면 남장로회소속 학교들은 모두 폐교한다는 안을 가결시켰다. 이것이 이른바 ‘풀턴성명’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장로회 선교사들이 이 성명을 지지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말하는 신사의 비종교성은 기만이다. 신사의식은 조상숭배를 포함하고 있고, 기독교는 일치하여 그것을 금지하여 왔다. 국가 신도와 교파 신도의 명확한 구별은 없다. 정부의 공식 견해·신문 등은 국가신도가 분명히 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신사의식은 기도, 신에 대한 봉헌을 포함하여 종교의식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sup>1)</sup>

이 성명을 기초로 하여 전주에서는 풀턴이 제시한 학교에 관한 방책을 실행위원회에서 결의하였다. 이는 13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최근의 상황변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학교를 폐쇄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총독부나 선교회 중 어느 한쪽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둘 사이의 충돌은 필연적인 것이었고, 이에 따라 긴장도 더욱 고조되어 갔다.

---

1) G . T . Brow n, *M ission to K orea*, 1962, 152~153쪽.